

책과 함께 평화·인권의 가치 되새기다

책으로 만나는 4·3

4·3그림책 '나무도장' 원화전 북큐레이션 4·3관련 도서전 등

제주4·3 76주년을 맞은 4월, 곳곳 도서관에서 책과 함께 4·3을 기억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되새기는 시간이 마련되고 있다.

김영수도서관친구들은 제주북초등학교 김영수도서관 마을도서관에서 76주년 제주4·3을 기리는 권운덕 작가의 그림책 '나무도장' 원화전시를 선보이고 있다. 원화전은 4월 한 달간 김영수도서관 마을도서관 2층 '목판아가 보이는 뜰'에서 진행된다.

>> 사진

전시를 기획한 김영수도서관친구들 통해 신인기 대표는 "이번 전시를 통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해 보이는 평화와 인권 그리고 공동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학교도서관이자 마을도서관인

김영수도서관은 평일엔 오후 5시부터 9시까지, 주말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마을도서관으로 운영된다. 화요일은 쉽다.

우당도서관은 향토 자료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매일 운영하고 있는 '책섬, 제주 향토 북 큐레이션'의 4월 주제로 '불어라 4·3의 봄바람, 날아라 평화의 씨'를 선정했다. 이는 제76주년 제주4·3을 기념하고, '평화와 인권, 화해와 상생'의 가치를 제주4·3 관련 도서를 통해 시민과 도서관 이용자들에게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전시된 60권의 도서는 이달 30일까지 우당도서관 3층 향토자료실 내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다. 도서관 향토자료실에 전시된 4·3 북 큐레이션 도서 목록은 공공도서관 누리집 또는 책섬 제주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4·3 희생자 온라인 추모에 참여하거나 4·3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기원 온라인 응원 캠페인에 참여한 이용자를 대상으



로 '한눈에 보는 제주4·3 소재자'와 '동백배지'를 배부한다.

서귀포시 도서관운영사무소는 이달 한 달간 영령들을 추모하는 특별 온라인북큐레이션 서비스 '4월은 4·3입니다'를 진행 중이다. 매일매일(주말, 공휴일 제외) 4·3을 주제로 한 다양한 분야의 책 21권을 추

천사와 함께 만날 수 있다.

이밖에 올해 도서관의 날(4월 12일) 및 제60회 도서관 주간(4월 12~18일)을 맞아 곳곳 도서관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자세한 내용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도서관 통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여러 빛깔 매력, 새롭게 마주하다

설문대문화센터 소장품 기획전

제주특별자치도 설문대여성문화센터(이하 센터)가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수집한 회화, 조각작품 등 소장품 21점을 공개했다. 기획전 시설에서 8일 개막한 2024 소장품 기획전 'NEW:마주하다'를 통해서다.

>> 사진

전시명은 '센터의 새로운 소장품이 관람객과 처음으로 만난다'라는 의미를 담았다.

이번 전시에선 센터의 '여성작가 발굴·지원 기획전'에 참여했던 작가의 예술작품을 '제주의 자연', '자아', '제주4·3', '제주 신화' 등 4개의 주제로 살펴볼 수 있다.

김미영 센터 소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작품 면면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도민에게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소장품의 특성을 선보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전시는 이달 28일까지 이어진다. 오은지기자

낭독극·강연·제주어 인형극 등 다채

제주도서관은 도서관의 날(4월 12일)과 도서관 주간을 맞아 4월 한 달간 5개 분관(서귀포, 한수품, 송악, 동녘, 제남도서관)과 함께 다양한 행사를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우선 제주도서관은 오는 12일 어린이도서관 '별이 내리는 숲'의 가장 좋아하는 공간과 이유를 적어 공유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천해 선물을 증정하는 '내별소-내가 좋아하는 별숲을 소개합니다' 행사를 진행한다. 18일에는 '깜빡깜빡 도깨비' 도서 낭독극 체험 프로그램, 20일 오후 2시에는 '식물학자의 노트' 저자 신혜우 작가와의 만남을 각각 운영한다.

서귀포도서관에서는 12일 '도서관의 향기를 나눠 드립니다' 이벤트를 통해 자료를 대출한 회원에게 종이 방향제를 증정한다. 20일 오후 2시 '무등이웃에 부는 바람'의

저자 김영희 작가와 함께하는 '작가 수첩 들여다보기' 강연 등도 운영한다.

한수품도서관에서는 27일 오후 2시 '사춘기 마음을 통역해 드립니다' 저자 김현수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의 특강이 마련된다.

송악도서관에서는 13일 오후 2시 30분 제주어로 각색한 설화 '왕, 방, 감서' 제주어 인형극 공연이 열리며 '책콕데이' 이벤트, '책이나 바다 장터' 등도 운영된다.

동녘도서관은 13일 오후 2시 그림책 '씩씩한 꽃'을 읽고 이야기 꽃 피는 종이꽃 LED 유리돌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제남도서관은 18일 오후 7시 남원다목적 드림센터에서 '제주신화의 숲' 저자 강순희 작가와 함께하는 '제주로 책을 잇다' 강연 등을 마련한다.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황학주의 시: 읽는 화요일 (62)

한 소식

장석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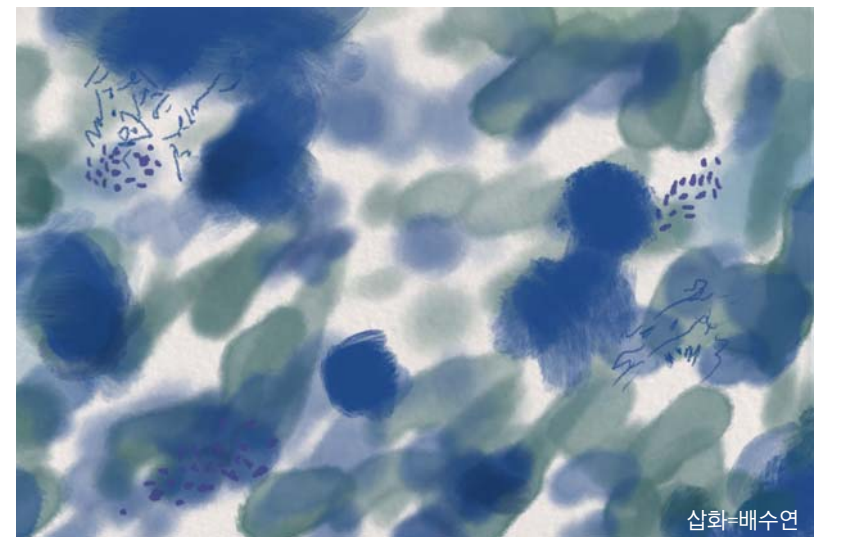
마당 밖에 잠언 한 구가 나무 그림자처럼 옮겨갑니다

풀이 돌아날 겁니다
아무도 보호하지 않겠으나 풀은 웃고
제 주권을 주장하지 않고 풀은 웃고
문 열어놓고 삽니다

그러나 아직 눈발이고
여자를 엮은 한 남자가 두 사람 무게의 깊은
발자국을 남긴 것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풀뿌리들이 소곤거리기 시작했으니
곧 발자국에서
흙이 올라올 겁니다

무거웠던 자국에서
가장 먼저 흙이 올라올 겁니다



삼화+배수연

아직 풀이 돌아나기 전이고 지상은 아직 눈발일 때 풀을 기억하는 것은 봄을 끌고 와 겨울을 보내는 목자들의 오랜 습성, 따스한 경험 아닌가. 여자를 엮은 한 남자가 눈발에 등장하는 장면이 좋고, 그들은 내가 아는 사람 같다. 달갑지 않더라도, '발자국'의 무게와 는 말을 많이 하지 마세요. 곧 흙이 올라올 겁니다. 어느 날 어느 시 풀숲에서 짹짹거리며 새가 옮겨 다니면 잠언 한 구가 맞구나 싶을 테고, 겨울은 스위스였구나 하고 알게 되지. 흙이 넓고 멀리 커튼을 치고 있다 풀을 짠, 하고 보여주면 한 풍경 하는 초원이 있는 거다. 꼭 문 열어놓고 삽니다. 울음이 꺼지고 웃는 소리가 안에서나 밖에서 들어올 것이다. 아직은 아니지만 당신은 반드시 내 앞에 나타난다. 또다시 꿈에서라도. <시인>



제주전통방식 그대로 맛을 낸~

고사리육개장 제주몹국

제주전통 요리 전문가가 정성을 다해 HACCP인증시설에서 안전하게 생산했습니다.

고사리육개장과 제주몹국은 이런 분들께 적극 추천해드립니다.

1. 소자본으로 향토음식점을 창업하실 분
2. 메뉴 추가를 고민하시는 식당 사장님
3. 매장에 진열해서 판매하실 분
4. 단체급식 또는 도시락 업체 운영하시는 분

문의처 신한에코 | 제주시 죽성서길 7-10 064-725-1100

